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예술에 '국민의 혈세' 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을 테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씬이어나나 돈이어나나? 그들만의 행위에 왜 세금을 낭비한단 말인가?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로또 등의 복권이나 토토·경마·경륜·경정·강원차지노 같은 국가 공인 '도박', 혹은 술·담배 등에서 뜬이러나 나랏돈 중의 일부, 예술가들에게 쓰는 것을 너그럽게 보아준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정신, 정서, 인식의 함양 또한 나라를 나라답게 한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에 자식이 '예술'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화를 내셨다. "국어 쪽으려고 한장했나?" 예술가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직업으

예술가는 동냥아치가 아니다

로 정평이 나 있었다. 직업도 아니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 대중이 아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버는 예술가도 1%는 된다.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으며 나름대로 권위와 권력을 누리는 예술가도 5%는 된다. 예술가의 50%는 취미 생활로 즐긴다.

하지만 예술가의 40% 정도는 '직업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노릇이다. 잡잘데 있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만사 편안한 생각이 아니다. 예술가 또한, 없으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가 슬하니, 그것들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직업 예술가를 자처하는 이들의 수입을 보면, 사실 그 본 예술 행위 위로는 버는 돈보다, 강의와 심사와 관련 알바 등으로 인한 부수입이 훨씬 많다. 이 생계형 예술가들이 바로 국가보조금 타 먹는 예술가들이다.

'창작 지원금' 형태로 나오는 국가보조금은, 돈도 돈이지만 상당한 자축감을 준다. 나아말로 대중이 자기 돈을 직접 들여 소비해 주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창작 지원금을 탈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작품을 생산하는 진짜 예술가라고!

공연예술 작품은 국가보조금을 받아야만 제작 자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3000만 원 정도 지원받았을 때, 수십여 명이 한두 달 이상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인건비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보조금 선정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작에 들어갈 수가 있고, 후원도 받을 수 있고, 대중의 참여를 얻을 수 있다.

국가보조금은 예술가에게 계층이거나 혹은 필요악이다. 받고 싶지 않지만 받고 싶고 쉬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토록 예술가로 살아가는 데, 왜 그렇게 예술가는 많은지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보조금 받겠다고 경쟁하는 것부터가 웬지 서글프다. 국가보조금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예술가들도 있지만, 부끄러워하는 이들도 있다.

'나라 도움'은 보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독·부정 수급을 방지하며, 보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고 한다. 말은 번드르르 좋는데 실제 3년째, e나라도움시스템의 약명이 드높다. 공무원이야 '써보니 참 편리한 것'일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술가들에게는 고난도 수학 문제나 다르다.

일단 지원할 때부터 쉽지 않다. 하다하다 안 돼서,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예술가들도 수도룩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배부른 소리 같지만 더욱 난관이다.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동화·정보화'가 예술가에게는 산 넘어 산, 요즘말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기획재정부와 재단의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여 정말 큰 도움 받아서 겨우 해낸 이가 대부분이다. 예술가들 대부분이 이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감내해야만 마침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지원하되 간섭'을 넘어 통제하려는 것일까? 예술가가 그 예술에 충실해야지 보조금 타 내는 지엽적인 과정에 정열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꼭 필요하다면, 예술가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소·간략화하기를 촉구한다. 일단 '도움'부터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예술가를 무슨 동냥아치 취급하는 것 같으니 하는 말이다. 예술가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이들이지, 거지가 아니다.

기고

비틀즈와 BTS의 성공 비결



유두석 장성군수

1959년 영국의 한 청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4인조 밴드에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골몰했다. 청년의 친구는 당시 유명 밴드였던 '크릭릿츠(The Crickets)'에서 착안해 '딱정벌레들(beetles)'이라 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청년은 그 단어에 음악 비트(beat)를 떠올릴 수 있도록 철자 한 개만 바꾸기로 했다. 비틀즈(Beatles)라는 이름은 그렇게 젊은 록 밴드의 펜 끝에서 탄생했다.

'비틀즈'라는 이름이 지어질 날로부터 60년 뒤 전 세계 음악 시장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일곱 명의 청년들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 영

국에 이어 일본 오리콘 차트까지 석권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그들을 포함시켰으며 CNN은 '비틀즈 이후 처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들의 인기를 높이 평가했다.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와 비견된 그들은 방탄소년단(BTS)이다.

BTS가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두자 이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대중음악 전문가들은 "멤버 모두가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며 동반 성장한 것"을 성공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들의 분석을 접하며 내가 떠올린 사람은 스티브 잡스였다.

스티브 잡스는 비틀즈의 팬이었다. 그는 비틀즈의 성공 비결이 '팀워크'에 있다고 생각했다. 스티브 잡스는 비틀즈의 '협업'을 롤 모델 삼아 그룹을 경영했고 애플 사(社)를 세계 최고의 IT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나 역시 스티브 잡스처럼 협업의 힘을 믿는다. 개개인의 능력으로 낼 수 있는 결과와 그들이 함께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의 말을 빌리자면 "총

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의 2년 연속 성공 뒤에는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팀'이 있었다. 4월 초 농식품부 주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푸드 플랜 공모'에서 장성군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조직 개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T/F팀을 구성하며 '협업'한 것이 주요했다.

'협업'이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동의 목표가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고안한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대'를 연 열쇠였다. BTS는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통해 전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스티브 잡스나 BTS가 당장의 수익이나 국내 음반 시장에만 집중한다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장성군은 장성호와 축령산 등 지역 내 관광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한편 국립 심혈관 센터 설립과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등 장성의 지도를 바꿔 나갈 '중장기 프로젝

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군민의 힘'이 보태져야 한다. 장성군은 '기버넌스'를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협업의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장시켜 '더 큰 장성, 더 자랑스러운 장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다. 장성군이 한 팀이 되었을 때 '잘 사는 부자 농촌, 미래형 동농 복합 도시'가 현실로 구현되는 날도 가까워질 것이다.

비틀즈 작명의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기에는 협업의 정수가 담겨 있다. 먼저 밴드의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는 팀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여기에 고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녹여 '비틀즈'라는 세계적인 밴드의 이름을 만들어냈다.

협업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어떠한 의견이든 경청하고, 좋은 점은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함께 자신만의 가치관을 적용해 이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 이것이 협업의 핵심 작동 원리라고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등 장성의 지도를 바꿔 나갈 '중장기 프로젝

社說

'방탄소년단' 세계수영대회 분위기 달군다

세계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7-8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 불조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BTS는 오는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 성공 기원 슈퍼콘서트에 참가하는데, 해외에서 1만 명의 팬들을 포함해 모두 3만 명이 광주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슈퍼콘서트에는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를 비롯해 모두 10개 팀이 참가하지만 팬들의 관심은 단연 BTS에 쏠려 있다. BTS를 보기 위해 중국 광저우에서 팬클럽 회원 1500여 명이 단채로 광주를 찾게 되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도 100여 명이 전세계기로 날아온다. 러시아와 독일 팬들은 광주 출신 멤버인 제이홉이 춤 연습을 했던 급남로 댄스학원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제이홉의 광주 흔적을 따라가는 이색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얼마 전 3개의 앨범을 차례로 미국 빌

보드 차트 1위에 올려놓아 비틀즈를 능가했다는 평가를 받는 BTS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트위터 팔로워 2000만 명, 유튜브 구독자 18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아미'라는 팬클럽은 실시간으로 지구촌 곳곳에 BTS의 활동을 알린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BTS가 참가한 슈퍼콘서트가 세계수영대회를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슈퍼콘서트가 올해 BTS의 유일한 국내 공연이라는 점도 세계수영대회 홍보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광주시와 수영대회 조직위는 그동안 수영대회 불조성에 공을 들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광주시와 조직위는 절호의 기회인 슈퍼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 모처럼 조성된 봄이 세계수영대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안한 한빛원전 소방방법도 안 지킨다니

영광 한빛원전의 극히 취약한 화재 안전 관리 실태가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산하 영광소방서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대한 소방 특별 안전점검을 벌여 위법 사항 96건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방 관련 법 위반 27건, 건축 관련 법 26건, 전기 관련 법 18건, 위법률 관련 법 25건 등이다. 장소별로는 행정본부 건물 37건, 1발전소 18건, 2발전소 9건, 3발전소에서는 32건의 위법이 드러났다. 1·2발전소 통합 자체 창고 방화셔더 비상탈출구에 선반을 설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1발전소에서는 위험 물질로 규정한 윤활유 보유량을 초과해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1발전소 소장 A씨가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한빛원전의 '안전 감수성'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다섯 차례 크고 작

은 불이 났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무려 96건이라는 위법 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8월 소방 점검에서 적발된 소방 관련 법 위반 49건보다 건수가 두 배가량 늘었다. 지역 시민사회 등은 '이 같은 위법 행태는 불이 날 때마다 원전 측에 강도 높은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 온 지역의 목소리를 묵살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체에 지진과 자체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증명하듯 원전은 단 한 차례라도 사고가 나면 국가적 재앙이 된다. 소방 당국 등은 국민 요구에 따를러 소방 점검에 나설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빛원전 측도 국민 안전을 담보로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고 화재 대응 매뉴얼과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유럽에서 19세기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격변기였다.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수탈이라는 양면성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중산층 등장과 노동자들의 가난이라는 극과 극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특히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했던 64년(1837년~1901년)간, 즉 '빅토리아 시대'는 산업혁명의 경제 발전이 절정이었다던 격동기였던 만큼 변화상도 뚜렷했다. 이 시기 대영 제국은 전성기였지만 한 편으론 산업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이에 대한 반발로 민주주의 사상이 태동하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와 민주와 자유사상의 흐름을 타고 사회 전반의 변화가 있었지만 유독 바뀌지 않고 고착화된 것이 여성의 순결과 남성 중심주의였다. 여성은 패션만 놓고 보더라도 철제 프레임의 크리놀린과 코르셋으로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도록 하는 등 복종을 강요받던 시기였다. 심지어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한다'는 이유로 피아노나 책상의 다리에 양말(커버)을 신길 정도였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여성의 사랑과 성에 대해서도 점차 자유사상이 움트기 시작했다. 급기야 1929년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결혼과 성'을 출간해 온 세상을 뒤흔든다. 예전에 자식은 가족과 같이 많이 낳을수록 부모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자식은 곧 노동력인 탓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소유자를 가려야 했고, 이때 소유자인 아버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성은 남편하고만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것이다. 순결은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미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여성들에게 자유연애의 예찬으로 받아들여졌다.

얼마 전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사라지게 됐다. 신체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다만 순결을 강조한 전통사회보다는 자유연애가 앞선 현대사회의 출산율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하는 탓에 임신을 꺼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낙태죄 폐지가 저출산을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낙태죄

종교칼럼

“맑은 바람 달 떠오를 때...”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4월 28일은 원불교가 교문을 연 날입니다. 이날은 원불교 교도들의 최대 경축일이자 공동 생일입니다. 1891년 전남 영광에서 출생한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하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기를 '청풍월상시(淸風月上詩) 만상자연명(萬像自然明)'이라 하였다. 맑은 바람 달 떠오를 때 만상이 자연히 밝아 온다는 의미이다.

104년 전 26세의 청년 대종사는 기존의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또 원불교의 교문을 열었을까?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500여 년 전 교황 레오 10세(Leo X)의 성(聖) 베드로 성당 건축비 충당을 위한 '완전 변화부' 남발에 대한 루터의 외침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가 막히게 실력이 좋은 마술사가 호랑이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마술사를 잡아 먹어버렸다"라는 원호 스님의 이야기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유럽은 이미 탈종교 시대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각 종교의 성직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현대인들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종교 생활을 선호하지 않는다. 예전처럼 특정 종교나 교리에 속박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미래로 갈수록 제도화된 종교가 힘을 잃을 것이다. 모든 종교가 교권주의와 제도를 넘어서서 개인들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는 다원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이 현대가 요구하는 범세계적인 종교 개혁이다.

루터는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종교는 유한하다"고 했다. 진리는 무한하지만 종교는 유한하다는 뜻이다. 진리를 담기에 종교의 그릇은 종종 너무나 좁다. 종교적 패러다임이 경직된 도그마로 작동할 때는 더욱 그렇다.

길거리에서는 이웃 종교 신도나 이웃 종교 성직자를 향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들을 거리낌이 없이 외치고 있고, 일부 개신교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흔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현상이 그렇다.

청년 대종사의 깨달음은 '모든 사람이 부처이다'에서 출발한다. 원불교의 개교 정신은 '종교는 왜 존재하나?'라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종교는 인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가슴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물음에 답을 주어야 한다. 청명한 바람이 동쪽 하늘에서 불고 맑은 달이 떠오르면 자연히 세상은 밝아지는데 맑은 생각과 도그마로는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좋은 종교는 단순하고, 소박하고, 명료한 종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다. 이 말은 루터가 말한 본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와도 통한다. 지금 세계의 흐름을 보면 초종교적 영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 생활 속에서 마음을 맑히고 주변인연들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마음 공부가 미래의 패러다임이다.

간디는 "진리가 하느님이다(Truth is God)"라고 외쳤다. 간디는 힌두교를 믿었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다. 영국이 인도 통치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당 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지고 가고 성경 속의 예수는 두고 가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종교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이다. 종교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이 물음을 던져야 한다. 원불교를 비롯한 새로운 종교가 자주 생겨나야 한다. 제 2의 원불교, 제 3의 원불교가 생겨나야 한다. 태평양 같은 큰 샘에서는 하나의 샘수 구멍으로는 안 된다. 억만개의 샘수 구멍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촛불로는 힘이 약하다. 백만의 촛불, 이백만의 촛불이 되어야 혁명이 되는 것이다. 2세기를 여는 대각개교의 달에 내가 소태산 대종사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입니다.